

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

2015 주요업무계획

2015. 1.



인천광역시

<http://www.incheon.go.kr>

[해양항공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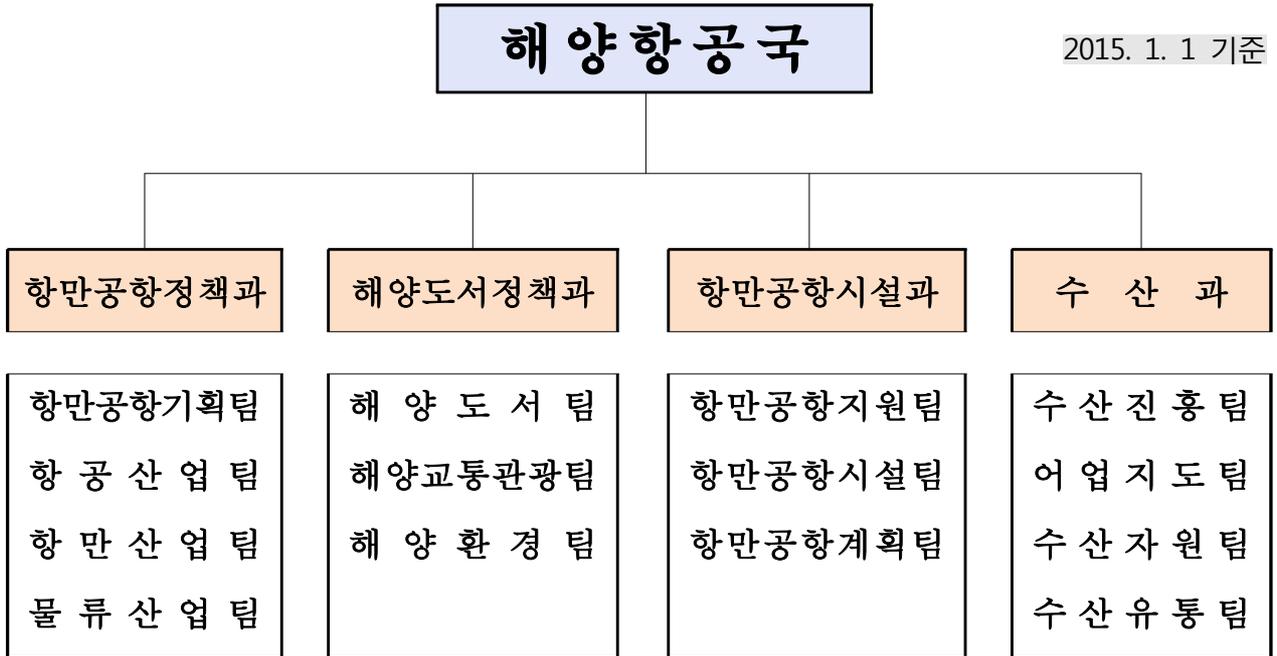
목 차

I. 일 반 현 황	3
II. 2014년 성과와 평가	6
III. 2015년 정책여건과 목표	10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	16

I . 일반현황

1] 일반현황

□ 기 구 : 4과(14팀), 2사업소(6팀), 110명



※ 수산자원연구소 2개팀, 수산사무소 4개팀

□ 예 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	2015년	내 역		
			인건비	물건비	사업예산
계	194,646	192,758	2,546	2,790	187,422
항만공항정책과	107,529 (화물예산)	109,001 (107,232)	137	489	108,375 (107,232)
해양도서정책과	58,452	57,720	-	546	57,174
항만공항시설과	2,650	2,199	-	30	2,169
수 산 과	21,875	19,417	20	710	18,687
수산자원연구소	2,966	3,234	1,671	725	838
수 산 사 무 소	1,174	1,187	718	290	179

2 주요 현황 및 통계

○ 항만 현황

- 무역항 : 인천항 123선석

내항	남항	연안항	북항	송도	영흥도	거침도	계
48	28	10	25	4	4	4	123

- 연안항 : 용기포항, 연평도항

○ 물동량 현황

구 분		2014. 11 (누계)	2013. 11 (누계)	전년동월 누계대비	비고
항 만	화 물	13,672만톤	13,414만톤	1.89 % ↑	
	컨테이너	214만TEU	196만TEU	8.41 % ↑	
공 항	여 객	3,801만명	3,800만명	0.03 % ↑	
	화 물	234만톤	225만톤	3.85% ↓	

※ 자료출처 : IPA HP-통계정보 , IAA HP-항공통계

○ 수산 현황

구 분	어가구 (어업인구)	어선등록	어업면허	어업허가	관 공 선	수산물 생산현황
현 황	9,702호 (18,475명)	1,927척	474건 (5,846ha)	2,274건	1척 (어업지도선)	28,200톤 (1,594억원)

○ 해양 도서 현황

구 분	내 용	비 고
도서 지역(섬)	168개 (유인34, 무인 128, 연륙도서 6)	
해양보호구역 지정	3개소, 130.21km ²	송도갯벌, 대이작도, 장봉도
연안여객 수송실적	1,600,068명	

Ⅱ. 2014년 성과와 평가

1 주요성과

□ 항만·공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

- 개항 이래 최고의 물동량 달성으로 환황해권 중심항만 도약
 - 인천신항 개장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최고의 “컨” 물동량 달성('13) 216만TEU ⇒ ('14) 235만TEU, 8.7% ↑
 -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: ('05)115만 → ('08)170만 → ('10)190만 → ('13)216만
 - 선사와의 공고한 협력 유지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신규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치 성공 ('13) 3개 ⇒ ('14) 4개 【총 41개노선】
- 최대 크루즈여행객 방문으로 인천항의 해양관광거점 토대 마련
 - 적극적인 인천항 포트 마케팅 및 국제크루즈 정기항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
 - 중국 신규 크루즈선사 유치 성공 등 인천항 최대 크루즈 여행객 유치
 - ('13) 247천명 ⇒ ('14) 255천명, 5.7% ↑
- 인천신항 증심 및 국제여행객터미널 건설 정상 추진(공정율 58%)
 - 2015년 예산에 증심사업비 319억원, 국제여행객터미널 건설 400억원 확보
 - 인천신항 항로 증심사업 설계용역 실시 ('14. 8월)
 - 국제여행객터미널 통합 이전을 통한 선사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, 동북아 관광레저포트 허브로 도약
- 항공정비(MRO)산업 육성 기반 마련
 - 인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(인천TP, 인하대 참여)
 - 민선6기 인천 항공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
-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
 -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개발 용역 실시
 - 용역기간 : '14.9.~'15.7 / 5억원 / 착수보고회 개최('14.11)

□ 도서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

-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 지원(87억원)
 - 정주생활지원(월 5만원, 5,036명), 교육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비), 생필품(유류·가스·연탄·펠릿), 해상운송비 및 노후주택개량(140동) 지원 등
- 낙후된 도서·접경지역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
 - 교동연륙교('14. 7월 개통), 삼산연륙교('13. 3월 착공, '17년 6월 완공), 덕적-소야연도교('14. 11월 착공, '18. 10월 완공) 건설 추진
 -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(6,480톤, '14.11월기준)

-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, 연평·백령 등 섬주민의 해상교통 개선 및 관광인프라 구축(131억원)
 - 도서민 572천명/차량 45천대, 인천시민 406천명, 他 시·도민 65천명
- 해양 생태계 보전관리
 - 제13회 세계습지의 날 개최 및 송도갯벌 랍사르 등록('14.7)을 통한 습지 보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
 - 서해를 중심으로 해양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대내외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UN산하 황해광역해양생태계(UNDP/GEF YSLME) 사무국 송도 유치

□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

- 고소득 특화전략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
 - 서해5도 소득 증대를 위해 해삼 섬 조성(20ha/120만미, 32억원)
 -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 방류 확대(7품종/1,273만미, 45억원)
 - 인공어초(4종/17억원), 바다목장(2개소/20억원), 바다숲 조성(100ha/12억원)을 통한 수산생물 서식 공간 조성
-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어업인 지원 확대
 - 어항시설 확충 및 복합기능 부잔교 시설, 소형어선 인양기 및 다목적 크레인 설치, 어선 안전수용 및 어촌생활 기반 조성(3개항, 6개소/59억원)
 - 어선원 보험료 지원(520척),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(851명),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(7개소) 등 어업인 지원 확대(14억원)
-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 및 브랜드화
 - 수산물 유통·가공분야 강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, 새우·김·바지락 가공시설, 위생용기 등 제품 경쟁력 강화
 -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(꽃게, 젓새우), 관내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
- 연근해 어업 조업여건 개선,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
 - 접경해역(강화) 조업 여건 개선
 - 강화 젓새우 구획 안강망 시험 어업 처분(1,250톤, 24억원)
 - 강화 “만도리어장” 야간(가박) 구역 변경(150척, 척당 3천만원 소득 창출 예상)
 -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 등으로 어업 여건 개선(30척, 7억원)

② 평가 및 개선방향

□ 도시민 생활안정 및 특성화 사업 필요

- 특성화사업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
 - 도서특성화사업으로 관광 활성화가 마련되었으나 초기단계의 관광 콘텐츠 부족 및 대형여객선 취항 관련 관광객 유치방안 미흡
-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
 - 지속적인 지원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있으나, 유류운송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이 주민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 실정
-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
 -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, 도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, 다만, 수혜자의 지원효과 대비 과도한 재정소요 등의 문제점 상존
 - (인천시민운임지원) '13년 기준 1인당 지원혜택은 9,300원(37억원, 398천명)

□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 및 어업인 피해 대책 강구

- 청정해역 인천앞바다 만들기
 - 청정해역 조성과 주민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용 사업구조, 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점 지속 제기
 - 침적쓰레기사업은 해수부사업으로 대체하고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사업은 기존 3개권역에서 2개권역으로 축소, 해수부와 중복성 있는 해양오염 측정사업은 폐지 검토(예산절감 약 3.2억원)
-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등록
 - 습지의 중요성과 지속관리 필요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
 -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사업 추진
-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 수립
 -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으로 불법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피해보상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구
 - 간접지원 방안으로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, 노후기관 대체, 장비개량, 냉동·냉장 시설 등 추가 지원 요구

Ⅲ. 2015년 정책여건과 목표

1] 여건과 전망

○ 국제 및 국내 경기의 위축 등 부정적 요인과 한·중 FTA체결, 인천 신항 개장 등 긍정적인 요인이 상존

- 국내외 경기 악화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항과 북항을 비롯 인천항의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감소
- 그러나 한·중 FTA체결에 따른 대중국 화물·여객 수요 급증 예상
-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배후부지 적기 공급 및 고부가가치 창출 항만배후단지 조성 필요
- 인천신항 시대 개막을 위한 인천항 선대유치 포트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필요

○ 항공교통 이용시설의 도시발전과 연계된 복합시설로 발전

- 삶의 질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로 항공수요는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, 항공화물은 회복세 추정
 - 2015년도 인천공항 여객 수요 4,477만명, 화물 수요 269만톤 예상
- 저비용항공의 급성장으로 항공교통수단의 대중화 급진전
 - 인천공항 저비용항공 비중 11% 이상 예상
- 항공기정비, 임대 사업의 급성장과 항공전문 인력 수요 증가 예상
 - 국토부에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 수립 추진(2015.1.)

○ 해양 및 도서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가치 재창조 프로그램 개발 필요

- 남-북간 긴장관계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서해5도를 중심으로 재발할 개연성 상존하나,
- 정주여건 개선, 관광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,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市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
 -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해양관광을 포함한 해양산업육성 추진

○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상승에 따른 다수민원 발생 예상

- 내항 재개발, 국제여객터미널 이전, 연안항운 아파트 이전 등

2 정책목표

글로벌 물류중심 인천항

국제물류도시 도약

- 1 동북아 국제 중심항 구축
- 2 항공정비 부품산업 기반육성
- 3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·협력
- 4 지역물류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

매력적인 도서개발 및 청정 해양 조성

- 1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
- 2 해양레저 산업 육성(신규)
- 3 도서관광 활성화
- 4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

경쟁력 있는 항만인프라 구축

- 1 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
- 2 신규 토지 자원의 활용 (준설토 투기장)
- 3 내항재개발을 통한 친수 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
- 4 시민 친화적 친수구역 개발

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 여건 개선

- 1 인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추진
- 2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
- 3 한-중 FTA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
- 4 유용 수산자원 생산·방류 및 시험연구
- 5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및 맞춤형 수산인력 양성

IV.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브랜드 정책과제

- ① 항공정비 부품산업 기반육성
- ② 매력과 감동을 주는 명품섬 조성
- ③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피해 어업인 지원

1

항공정비·부품산업 기반육성

- ◇ 우리시 경쟁력인 인천공항, 인천경제자유구역, 구도심 산업단지 활용
- ◇ 창조경제 기반의 항공정비·부품산업을 육성, 인천시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□ 추진전략

- 인천공항(항공정비특화단지) ↔ 경제자유구역(항공산업 산학융복합) ↔ 구도심산업단지(자동차 산업 연계 항공부품제조)
 - 청와대(미래부) : 인천의 창조경제혁신산업으로 항공산업 선정(2014.9.)

□ 항공산업육성 기반조성

- 제1차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(2016~2020)
 - 공항정책(인천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포함), 항공산업정책(항공운송, 항공정비부품, 항공물류 포함)
- 항공산업 산학융복합지구 조성 추진
 -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연구·개발, 교육·훈련 등 경쟁력 기반
 - 글로벌 항공산업 R&D 및 기술이전, 교육훈련 산학연 연계 지구 조성
 - 국비확보 :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사업 공모 또는 예비타당성 사업(2015)

□ 항공정비(MRO)산업 기반육성

- 인천공항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(예정부지 35만평 旣 확보)
 -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과 위상에 맞는 전문정비서비스 제공과 부품시장 조성
 - 우리나라 해외외주 항공정비금액 : 1.35조원(2013)

□ 항공부품산업 역량 강화

- 구도심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공부품 제조분야 강소기업 육성
 - 주관기관 : 인천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(인천TP, 3억원)
 - 항공부품산업은 기술기반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기업에 적합

■ 인천시 항공부품 제조산업 수요조사 결과(2014.11.)

- 조사표본수 : 500개사
- 항공산업 참여기업수 : 21개사(4.2%)
- 현재 기술(제품)으로 항공산업 진출 가능 기업 : 155개사(32.4%)
-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항공산업에 참여 의향 기업 : 152개사(30.4%)

- ◇ 도서지역에 대한 차별화, 섬 특성에 적합한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
- ◇ 도서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도모

□ 추진전략

- 섬 다음의 가치 재발견과 섬 매력의 차별성을 부각
- 섬 지역의 정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

□ 명품섬 조성계획 (32,981백만원)

- 안보·평화의 섬 : 서해 5도, 강화
 - 연평해전, 포격, 천안함 피격, 민통선 지역 등의 풍부한 안보관광 자원 활용 (20,751백만원)
- 문화 예술의 섬 : 중구 소무의도
 - 창의적, 지속가능한 섬, 문화 예술성 부각(300백만원)
- 생태관광 섬 : 북도, 자월도, 불음도, 주문도, 장봉도 등
 - 해양생태계보호, 습지, 천연기념물 등 자연생태환경 우수지역 이용(9,620백만원)
- 에코아일랜드 : 덕적도
 - 녹색교통 중심의 탄소제로 육성(2,310백만원)
- 테마별 도서현황



◇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5도 어업인 피해와 관련 불법조업 방지시설 등 피해대책 방안 마련

□ 중국어선 불법조업 철저 단속 및 조업차단 방지시설물 설치

- 지속적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요구에도 불구하고, ‘10년도부터 매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업 차단을 위한 대책방안 필요
 -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: 10개, 1,000백만원(국비)
 - 경비세력 증강 및 연중배치 건의(시 → 해수부, 국가안전처 등)

‘14년 중국어선 약 1,130척이 어구를 훼손 하는 피해 발생
· 피해내용 : 69척/통발 등 748틀(피해금액 12억원)

□ 서해5도 어업인 직·간접 지원 대책 마련

- 피해 어업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확대 추진
 - 어선어업인 지원 : 기관대체 사업 외 5개, 1,144백만원
 - 증양식 및 유통 지원 : 수산종묘방류사업 외 8개, 12,089백만원
- 피해어업인 생계대책비로 5억원 지원(웅진군)
 - 중앙(해수부)에서도 간접지원 방안 검토 중(침체어망 인양 등)

□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 어업인 구제

- 중국어선 피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 어업인 구제
 - 『서해5도 지원 특별법』 및 EEZ법 개정 건의
 - 피해보상 근거 마련 및 중국어선 담보금을 활용한 피해 보전 등
 -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건의 : 서해5도 어장확장(160km²)
 - 서해5도 어업허가 전환 및 자율화
 - 서해5도에 한해 자원 조사 결과 허가 전환 추진
 - 궁극적으로 1개 허가로 자유롭게 조업 할 수 있도록 자율화 추진

항만공항정책과

- ① 동북아 국제 중심항 구축
- ②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·협력
- ③ 지역물류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

1

동북아 국제 중심항 구축

◇ 인천항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기적 항만 인프라 구축 및 창조적 정책방향 설정 · 추진

□ 인천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·중항로 개방 및 원양항로 개설

- 한·중 FTA 체결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 대응, 중국 경제의 동력축인 동부연안 항만과 연계한 해운 네트워크 구축
- 한·중 항로개방을 위한 대내·외적 노력 지속
 - 양국간 합의된 사항 이행 촉구 및 한·중 컨테이너 항로 단계적 전면 개방 추진
 - 2005년 제13차 한중해운회담시 「2009년부터 컨테이너 항로 완전개방」 협의
- 신항의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한 원양항로 개설 및 물동량 창출
 - 구주, 미주 등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(도시) 대상 중점 마케팅 실시

□ 인천 국제여객부두(터미널) 건설 [별첨 1]

- 인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(5,805억원, 2017개장)
 - 사업내용 : 8선석(크루즈 15만t×1, 카페리 5만t×1, 3만t×6), 국제여객터미널 1동(55천㎡)
 -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복합개발 투자유치 등 협력 지원
-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 현상 대비책 마련
 -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대책 TFT 구성 · 운영(분기 1회)

□ 국제 크루즈 수용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

- 대형 크루즈 입항 급증에 따른 안정적 선석 확보 및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건 개선
 - 2015년 148항차 350천명 내외 (2014년 92항차 255천명)
 - 크루즈 관광객 및 승무원 대상 특별 프로그램 마련
 - 입항환영 전통공연, 포토존, 쇼핑존, 관광안내데스크, 셔틀버스 운영 등
 - 승무원(승선인원 30%)대상 인천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, 쇼핑점 연계 셔틀버스 운영

□ 항만배후단지 적기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 [별첨 2]

-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배후부지 공급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글로벌 기업 입주·투자유치 추진
 - 신항배후단지(212만㎡), 아암물류2단지(257만㎡) 조기착공

□ 인천항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운영

- 항만 연계사업에 대한 중재·조정 및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, 공동 추진
 - 인천항만·공항발전협의회(년1회), 인천항발전 고위정책 협의회(분기 1회)
 - 인천항발전정책협의회(수시)

【별첨1】 인천 국제여객부두(터미널) 건설



토지이용계획

-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면적 : 1,325천㎡ (약 40만평) = 항만용지 17.6만평 + 배후부지 22.4만평
- 복합지원용지 : 430천㎡ (약 13만평)
- 복합지원용지 지정을 통해, 투자자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(Flexible) 계획 수립가능
- 사업지 동측 아암몰류 2단지와의 통합 개발을 통해 기존 송도 국제도시와의 도시기능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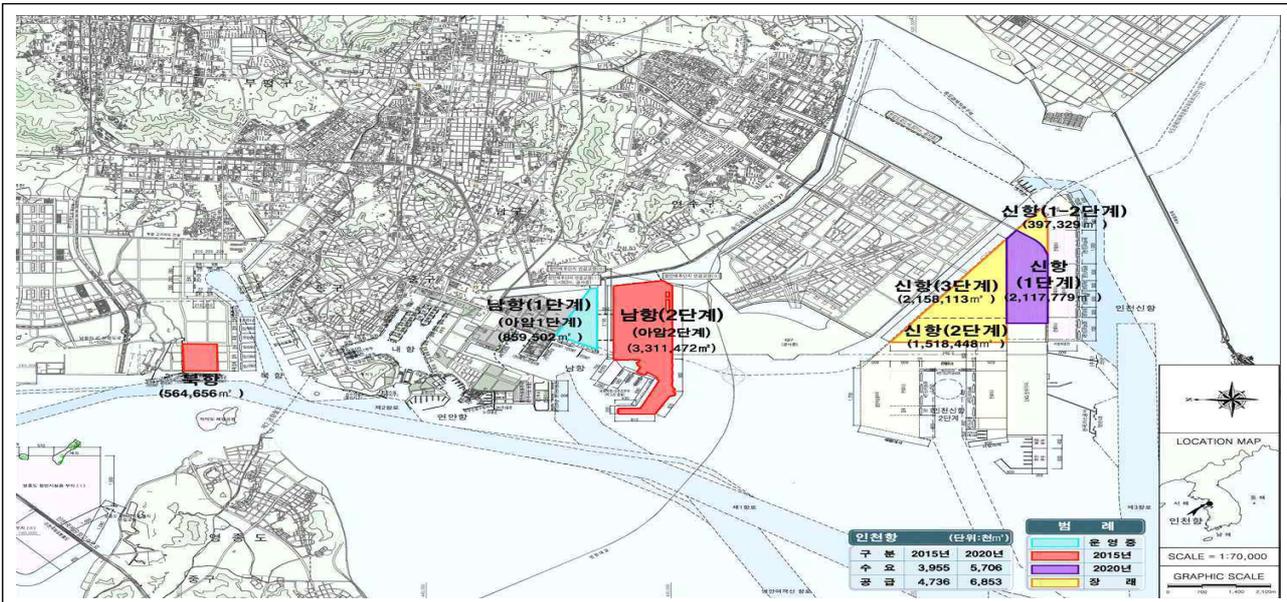
(단위: 천㎡)

구분	합계	100%	국제여객터미널	100%	아암몰류2단지	100%
합계(㎡)	3,950	100%	1,325	100%	2,625	100%
주상복합용지	54	1.4%	-	-	54	2.0%
복합지원용지	625	15.8%	430	32.5%	195	7.4%
연구시설	134	3.4%	-	-	134	5.1%
물류시설	1,156	29.3%	-	-	1,156	44.0%
공공시설	1,980	50.1%	895	67.5%	1,086	41.4%

- 복합지원용지
- 상업시설
- 물류시설
- 공원, 녹지
- 주상복합용지
- 연구시설
- 항만시설
- 공동주택
- 공공시설



【별첨2】 항만 배후단지



- ◇ 인천공항의 지역사회 참여 협력 등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
- ◇ 우리시와 인천공항의 협력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공동협력 사업 발굴 · 추진

□ 항공 · 공항정책 협력체계 구성

- 인천 항공·공항발전 고위정책 협의회 구성 및 정례 운영
 - 인천의 공항과 항공산업에 대한 정책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공항의 사회적 역할과 인천시와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
 - 구성 : 시 · 인천국제공항공사 · 서울지방항공청 · 인천TP 등

□ 인천시-인천공항 공동 협력사업 발굴 · 추진

- 우리시와 인천공항이 동반성장하는 아젠다 발굴 및 협업
 - 대상사업 : 항공정비부품산업육성, 인천국제공항 환승 · 환적 확대, 공항자유 무역지역 활성화 등
 - 2013~2014 : 영종소방서 건립, 인천시민구단 UFC 지원, 지역 건설업체 참여 제도 확대, 인천공항 지방세 감면조례 연장, 국제항공화물포럼 및 전시회 개최 등

□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 제도 마련

- 인천국제공항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추진
 -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또는 유사 제도 마련
 - 유사사례 : 항만공사법(항만위원 7명중 3명 추천)
- 우리시 인천공항 지분 참여 추진(하늘도시유보지 일부 현물 출자)
 - 실행방안확정, 지역정치권 · 시민사회단체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정부 설득
 - 하늘도시유보지 관계기관(시, 인천공항, 인천도시공사, LH공사) 협력

□ 지역주민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수립 및 지원

-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및 관련 지자체 공동대처
 - 소음 측정장치 추가 및 소음영향평가 재 실시 요구 : 국토교통부
 - 인천 및 김포공항 피해지역 공동대응
 - 인천(계양, 서구, 중구, 옹진), 서울(강서구, 양천구), 부천시

- ◇ 지역 중소물류업체 구조개선 및 물류운송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

□ 지역 중소물류기업체 구조개선

- 소규모 창고업체 및 3PL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공동화 협동조합 형성
 - 추진방법 :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물류기업들이 협동조합 설립·운영
 -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등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

□ 국제물류 주산업 공동물류 지원

- 소규모 국제물류 주산업(복합운송업)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물류센터 조성·운영으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원스톱 물류 서비스 실현
 - 위 치 :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
 - 사 업 비 : 14,282백만원(국·시비 각 50%)
 - 규 모 : 부지면적 약10,000㎡, 2층 12,569㎡(1층, 6,942㎡, 2층 5,627㎡)
 - 추진계획 : 컨설팅('15년도), 실시설계('16년도), 물류센터 조성·운영('17년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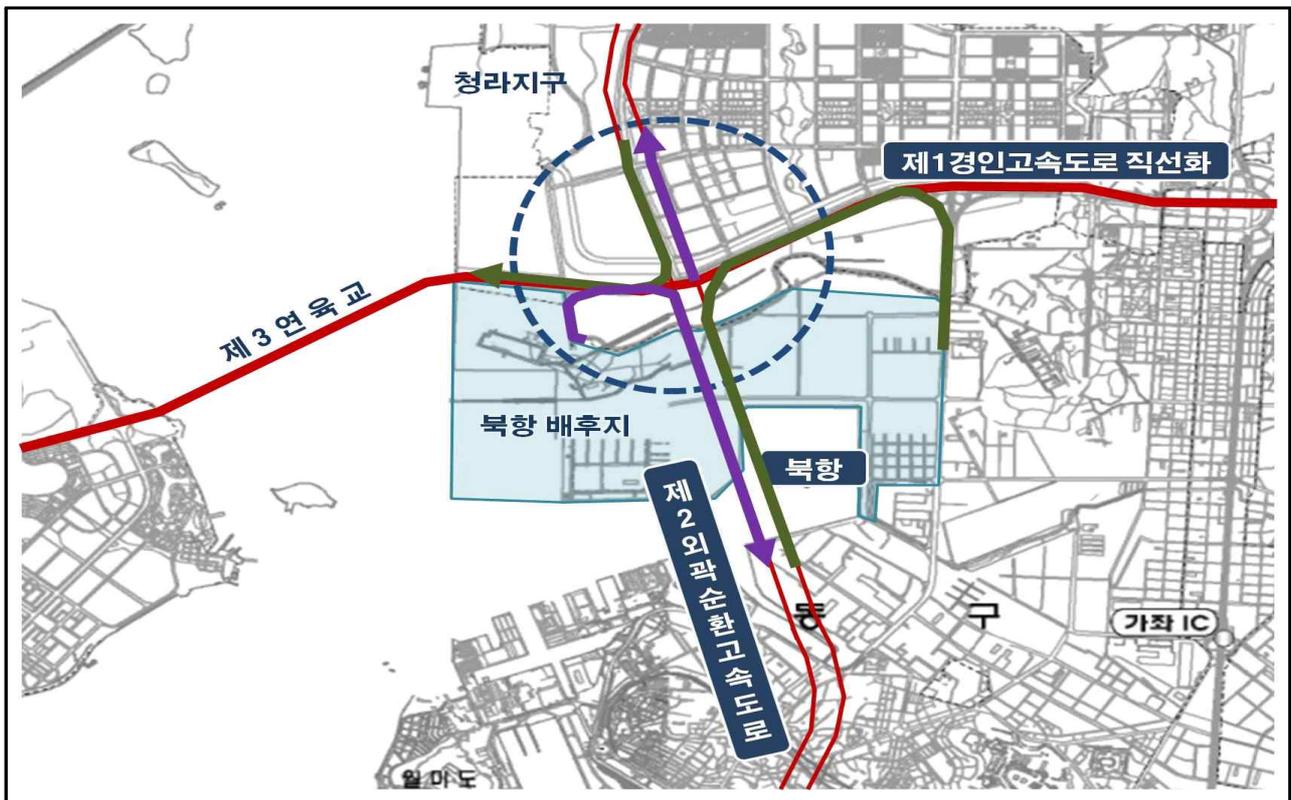
□ 지역물류 운송체계 단계별 개선

- 화물차 전용차로 도입
 - 화물자동차 혼재율이 30%, 편도3차로 이상인 향만 및 공항, 유통 및 산업 단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위주 검토
 - 시범사업 대상
 - 1단계(현실적 가능지역) : 인중로(5.3km), 서해대로(1.8km, 중봉대로(3.1km)
 - 2단계(향후 확대 필요지역) : 제2경인고속도로(9.7km)
- 향만시설 주요 진출입로에 화물차 전용 진출입램프 설치·운영
 -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청라지구~북항배후지 경계지점 (북항 IC 부근)
- 화물자동차 통행관리 개선
 - 통행제한구역 재설정 및 제한중량초과 단속체계 개선

○ 화물차 전용차로 시범시행 구간



○ 화물차 전용램프 시범시행구간



해양도시정책과

- ①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
- ② 해양레저 산업 육성(신규)
- ③ 도서관광 활성화
- ④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

1

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

◇ 서해 5도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도모

□ 서해5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(374억원)

-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(4개사업/94억원)
 - 정주생활지원금, 교육비, 생필품해상운송비, 노후주택개량
-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(13개사업/143억원)
 - 해안경관도로조성, 조림사업(숲가꾸기) 등
-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(16개사업/137억원)
 - 일자리추진(지역공동체), 노인일자리, 백령-대청 바다목장 조성 등

□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및 지원 확대

-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 및 농어업인 지원 확대
 - 정주생활지원금 상향 인상
 - 어업피해 및 조업손실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등
 - 도서지역 생필품(밀가루, 설탕) 등 지원 확대
 - '15년 서해5도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건의



(노후주택개량사업)



(백령-대청 바다목장조성 종묘 방류)

2

해양 레저 산업육성(신규)

◇ 해양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마리나, 요·보트 등 해양 레저 인프라 확충

□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

- 인천발전연구원, 인하대(해양레저센터), 인천일보 등 지역전문가와 마리나 산업협회, 민간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T/F 구성·운영
 - 우리시의 레저산업 현황(인프라, 제조기업 등), 발전목표, 중점투자분야 등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전략을 ‘15년 상반기까지 확정

□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

- 덕적마리나 민간투자자 확정
 - 덕적마리나 항만(거점형 마리나)에 대한 민간투자자 ‘15년 상반기 확정
 -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(입지, 투자규모 등) 부여
- 신규 마리나 항만 지정
 - 영종, 인천신항을 ‘마리나항만지구’ 로 신규 지정(해수부)을 위한 행정력 집중
 -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(건당 300억원 내외) 및 공유수면 점·사용료 감면(50%)

□ 레저 장비기업 육성

- 거침도 조선 선박 수리단지 등에 요·보트 등 레저장비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왕산마리나는 물론, 건설이 진행 중인 신규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요·보트 수리 등 서비스기업도 적극 유치



◇ 관내 도서별 특성에 맞게 주제가 있는 섬, 명품 섬을 조성하여
도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

□ 추진 전략

- 찾아가고 싶은 섬, 평화생태마을 사업 추진으로 인프라 구축
- 명품 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

□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 (1,550백만원)

- 근대 문화 공간 조성사업 : 교동도(강화)
 - 용의 숲, 11명상의 방, 유배체험관 등 조성
- 바다,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: 이작도, 불음도(강화)
 - 이야기 섬 탐방로, 바다생태학습장 등
- 나그네 섬 : 덕적도
 - 전망대, 습지관찰테크, 생태체험센터 건립 등
- 치유의 섬 : 승봉도
 - 승봉이야기 전시관, 하경공도 무인도 체험 등
-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: 소무의도(중구)
 - 갯벌 체험장, 바다시장, 민박개선, 야외조형물, 문학관, 축제 등

□ 평화생태마을 조성 (1,187백만원)

- 이색체험마을 조성 : 장봉도
 - 해안탐방로, 갯바위낚시터, 철죽군락지 조성 등
-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: 강화군 국화리
 - 문화체험관, 들레길, 테마식품, 주택경관 개선 등



◇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,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

□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

- 해안 쓰레기 적기 수거·처리로 청정해양 생태계 유지
- 청정해역 조성과 주민 일자리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, 고비용 사업구조, 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



- 부유쓰레기사업(차단막 설치)은 2개 권역(기존 3개권역)으로 축소하며, 침적쓰레기 사업과 해양오염측정은 해수부와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폐지(예산절감 약 3.2억원)

□ 해양보호구역 보전·관리

- 습지보호지역인 송봉도에 해안 탐방로를 설치하고 송도갯벌에 대한 모니터링, 갯벌 생태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시
- 송도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사업 추진
- YSLME 사무국 송도 입주로 한·중·북과 UNDP의 공동협력하에 자원남획, 과도한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서해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도모
- 해양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훈련 및 시설점검 실시로 해양안전 관리 도모

항만공항시설과

- ① 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
- ②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(준설토투기장)
- ③ 내항재개발을 통한 친수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
- ④ 시민 친화적 친수구역 개발
- ⑤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공사

1

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

◇ 인천항 및 경인항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추진

□ 인천항만 기본계획

- 우리시 대상항만
 - 국가관리무역항 : 인천항(내항, 남항, 북항, 신항), 경인항(경인아라뱃길)
 - 국가관리연안항 : 용기포항, 연평도항
- 인천항 항만기능 재정립
 - 내항은 시민이 해안에 접근 가능하도록 재개발 추진
 - 남항은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 부두로 운영하고
 - 신항은 국제물류 거점 항만인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
 - 북항은 원목, 철재, 잡화 부두로 특화 운영

□ 인천 신항 건설 [1-1단계 : 6선석]

- 선진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하여 해운과 항공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주와 유럽의 교차항만으로 발전시켜 환황해권 물류중심항만으로 개발
 - 컨테이너A터미널 상부공사 착공(2014. 4.25)

구 분	A 터미널(3선석)	B 터미널(3선석)
사업시행자	한진컨소시엄 [한진, 한진해운, 고려해운]	선광컨소시엄 [선광, STX팬오션, 영진]
사업기간	'09. 4. ~ '13. 2.	'09. 4. ~ '14. 5.

- 인천 신항 개장 1선석 (2015년 6월) / 2016년 상반기 5선석

□ 인천 신항 항로 증심(増深) (14m→16m)

- 청도 등 북중국 항만을 기항하는 원양선사 항로 유치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서의 우위 확보
 - 인천 신항 증심준설 실시설계용역 착수 (2014.8.29. ~ 2015.2.26.)
 - 용역비 : 15억원, 용역사 : 세광종합기술단
 - 인천 신항 준설공사 추진(319억원, 2015년 7월 착공 예정)

- ◇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이 목적이나,
- ◇ 투기장 조성 후 수익형 개발의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토지소유권 분할 등 제도개선 필요

□ 국가 일방 주도의 준설토투기장 조성 및 공유수면 매립

- 항만법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의제처리로 지자체 의견 배제
 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및 매립목적 등 민감한 사안의 지자체 의견 반영의 어려움 초래
- 항만시설 조성 목적이 아닌 대규모 광역투기장 조성지에 관광·위락 단지 조성으로 지자체와 마찰 증대
 - 지자체 공유수면 감소에 따른 대규모 신규 토지의 소유권 및 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 문제 제기

□ 신규 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장·단기 추진

《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: 단기》

- 첨단 해양연구 타운 유치로 해양 지식기반 조성
 - 해양과학관, 해양생태연구소, 해양재난 체험시설 등/308,203㎡
- 상생협업을 통한 주민지원 단지(어민) 조성
 - 어민들의 전업시설 및 주민복지관 등 레저와 여가를 연계한 수산물 종합타운조성/360,200㎡

《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: 장기》

- 2015. 1월 : 정책연구 과제 추진방향 방침(시장님)
- 2015. 3월 : 개정법률(안) 및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자문(고문변호사)
 - 항만법 제9조(항만공사의 시행자 등) 제15조(항만시설의 귀속)
 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법률 제28조(매립면허) 제46조(소유권 취득 등)
- 2015. 6월 : 국회의원 및 해양수산부 협의 및 건의

◇ 해양랜드마크 형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항창조문화도시와 연계된 조화로운 배치로 친환경적 시민친수 공간 조성

□ 개항장 역사공간과 연계한 제2의 도약의 장 마련

- 개항의 근대역사 및 현대사를 돌아볼 기념비적 공간과 연계
 - 인천우체국, 조계지 경계계단, 홍예문 등 근대개항문화 건축물
- 개항장 주변 원도심과 내항 1·8부두 재개발사업과 조화
 - 주변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공공성 확보(주차장, 공원 등)

□ 도심과 해양 친수공간 제공을 통한 연계한 해양랜드마크 건설

- 8부두 우선 개방 시민과 약속 이행
 - 1·8부두 중앙부 개방은 이용시민의 진·출입 불편과 하역사 공간부족
 - 시민이용이 편리한 8gate(8부두) 44,000㎡(13,210평) 개방 추진
 - 2015년 하반기 개방 및 보안구역 설정(해양수산부)
- 뷰티, 디자인, 전자출판, 공예 등 앵커시설인 「상상플랫폼」 추진
 - 노후 창고를 재활용한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조경제의 시발점
 - 교육체험, 인큐베이팅, 창작·창업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
 - 사업 개요
 - 규모/사업비 : 노후 창고 13,200㎡(약 4천평)/292억
 - 중·동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(인발연+유신)
 - 기간 : 2014.10.28. ~ 2015.8.27./ '15. 4월 국토교통부에 공모
- 도입시설 테마프로그램(아쿠아리움) 유치
 - 8부두 도입시설 : 영화관 켄벤션센터, 아쿠아리움
 - 일괄 사업시행자 공모로 추진되나 사업성 사유로 공모가 지연될 경우 아쿠아리움 분리 추진(해양수산부와 협의)
 - 투자유치담당관을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적극 추진

□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 추진

- 대체부지 선정 관련 협의 추진
 - 국방부는 송도 신항 인근의 부지를 요구하나 송도 이외의 부지에 대하여도 국방부와 재협의
- 이전규모 및 이전비용 분담 국방부와 지속 협의 추진
 - 국방부의 인방사 이전비용 우리시 부담 요구에 대하여 시 재정상 곤란 및 현인방사 가치 대비 최소 필요한 규모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추진
-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검토
 - 우리시 재정 여건상 조기 이전이 불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 추진

◇ 고부가가치 인천항만 건설을 위하여, 친수문화·휴식공간 확충

□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

- 아라뱃길 관광·문화기능 활성화 방안 검토
 - 아라뱃길과 연계한 다양한 수변문화·레포츠 활동 관광프로그램 구상
 - 편의·지원시설 확보방안과 특화된 장소 구상
 - 이용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선체계 구상
-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
 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·장기적인 주변지역 개발방안 수립
 - 다양한 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수변특화도시·문화도시 조성 검토
 - 실현가능한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제시, 사업적정성 판단
- 친수구역 지정제안 및 규제극복방안 수립
 - 부분별 개발계획(안)수립 후 친수구역 지정 추진
 -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국가물량 확보 추진

□ 공유수면매립지 (갑문지구) 활용방안

- 인천시 및 군·구, 산하 공사·공단 등을 통한 공공개발(매입) 우선 추진
 - * 토지소유자 인천항만공사 요구사항
- 공유수면 매립부지 매입 등 재정확보 방안 마련사업 추진
 - 매립목적 및 항만기본계획에 부합한 개발
 - 공유수면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인천항만공사 협의
 - 인천시, 군·구, 공사·공단 등 매립부지 활용 의견조회
 -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
 - 민간투자 등 사업비 확보 방안 다각적 검토

- ◇ 인천국제공항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선도적 육성 필요
(여객 세계 9위, 화물 세계 2위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09 ~ 2017년(9년)
- 총사업비 : 4조 9,303억 원
- 규 모
 - 제2여객터미널, 화물터미널, 교통센터, 계류장 등

□ 중점추진 계획

- 인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(여객 4,400⇒6,200만 명) 2017년 이후 현 여객터미널 및 기반시설 용량이 포화상태가 예상됨
- 교통편의 제공 등 기반시설 건설추진(2017년 완공예정)
 - 2017년말 개항목표 제2여객터미널 건설추진(연면적 350천㎡)
 - * 공정율 : '14.12월(11.50% / 11.40%), 금년 목표 54%
 - 진입도로 : 공항입구(JCT)~제2여객터미널(L=11.50km), 공정율 '14.12월(15.0%/14.8%)
 - 철 도 : 제1여객터미널~제2여객터미널(L= 6.38km), 공정율 '14.12월(36.0%/31.2%)
 - ※ 전체 공정율 : '14.12월 (18.7% / 16.8%), 금년 목표 45.7%

□ 우리시 역할

-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협의 완료(2014. 5월)
- ⇒ 동북아 허브공항을 위한 인프라 추가 구축으로 공항관련 산업 추진 기반확보
- ⇒ 자동차 전용도로(L=5.672km, 인천시 유지관리)이나 도로의 주요 이용객이 제2여객터미널 여객 교통수요인 점을 감안하여 공항공사에서 유지 관리 하도록 협의 공사에서 관리하므써 연간 약3억 원 예산 절감 기대

수 산 과

- ① 인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추진
- ②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
- ③ 한-중 FTA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
- ④ 유용 수산자원 생산·방류 및 시험연구
- ⑤ 지속가능한 양식반 조성 및 맞춤형 수산인력 양성

1

인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추진

- ◇ 지역 수산물 브랜드화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연고산업(RIS) 육성 및 품질인증 지원을 통한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코자함

□ 관내 주요 생산 수산물 현황

- 우리시 대표 생산 수산물 및 브랜드화 대상은 꽃게, 젓새우, 해삼
- 2013년 기준

구 분	꽃게	젓새우	해삼
중량 (가격)	9,990톤 (88억원)	2,262톤 (60억원)	40톤 (6억원)
전국 생산량 순위	1위	2위	7위

□ 고품질 우량 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및 협의회 운영

- 인천 특산 품종인 꽃게와 해삼 생산 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
- 어업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업종 간 갈등을 중재·조정하며 고부가가치 품종 발굴
· 꽃게자원관리위원회, 경인유관기관협의회, 어촌지도자협의회(각 분기1회)
- 품질이 우수하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해삼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
- 백령·대청을 해삼 양식섬으로 조성 : 15년까지 10,375백만원
· 서식 시설 확대를 위한 투석, 우량종묘 방류, 적지 조사 실시
· 백령·대청 고유 품종 보전 사업 추진
- 꽃게 생산량 확대를 위한 꽃게 총허용 어획제도 개선 및 준수, 외포란·어린게 어획 지도 단속 철저
· 꽃게 금어기(2개월) 조정 및 준수, 물렁게 포획 지도 및 대안 제시

□ 지역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

- 질 좋고 고가의 해삼 생산을 위한 방안 강구
- 해삼가공 시설 및 건조 기계 도입, 해삼 지리적 표시제, 품질인증제 도입
- 꽃게 제품의 다변화 추진
- 꽃게 지역 연고(RIS) 사업 추진 : 꽃게김, 꽃게 분말 천연조미료, 꽃게 다시마팩
- 꽃게 가공센터 조성 : 꽃게 가공 시설 및 HACCP(위해중점관리) 추진
- 지역 대표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강화
- 꽃게, 새우젓 소매 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(매년 지역별 총 3회)
- 전국 및 해외 전시회·박람회 참가(3회)
- 시장품질인증 품목 지정 및 행·재정적 지원

◇ 각종 재해로 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어선설비 현대화 및 어항시설 등 어업기반 시설확충

□ 어선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어업질서 확립

- 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,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및 조업지도 강화
 - 어업인(낚시어선업 포함) 안전교육 : 15회/1,000명(어한기/동절기)
 -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낚시어선 안전점검 : 4회/300척(분기)
 - 불법어업 단속 추진 : 5월 산란기, 10월 성육기 중점 합동단속
 - 지도선 현황 : 9척(시청 1, 강화 2, 옹진 6)

□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

- 저효율 노후기관(엔진) 및 장비·설비 교체를 통한 어선사고 예방 및 화재에 취약한 어선에 자동소화시스템 보급
 - 어선기관 대체 및 LED등 보급 : 36척, LED 50등/1,220백만원
 - 연근해 어선장비 개량사업 : 49척/175백만원
 -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: 210개(척)/275백만원
 - 초단파무선전화(위치발신기) 110개(척), 자동소화시스템 : 100개(척)

□ 어촌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경영지원

- 어촌 노동력 감소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로활동 보장 및 어업경영 지원으로 어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어촌정주의욕 증진
 - 소형어선 및 수산물 운반 크레인 설치 : 2대/140백만원
 -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: 520척/200백만원
 -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: 402척(표본수)/82백만원

□ 국가어항 추가지정 및 지방어항 건설 확충

- 열악한 지방재정 부족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 큰 어항을 국가어항 추가 지정개발 및 지방어항 확충
 - 국가어항 추가지정 : 1개소(진두항, 남동항 중 1개소)
 - 지방어항건설 : 3개항/4,500백만원(옹진 소연평, 답동, 진두항)

◇ 한·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협정 발효 시 예상되는 피해영향 분석을 통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함.

□ 관내 생산 주요 수산물의 FTA 협상 내용

- 관내 생산 수산물 중 꽃게, 젓새우, 바지락이 차지하는 비율은 88%로 꽃게 80%, 젓새우 5%, 바지락 3%
- 3개 품종 한·중 FTA 결과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
 - 꽃게 : 양허제외(신선, 냉장)
 - 냉동품은 초민감품목(관세 2%)감축으로 지정
 - 새우젓 : 초민감품목(양허제외)
 - 바지락 : 초민감품목(TRQ : 일정량은 저율관세, 초과량은 고율관세)

□ FTA 발효시 관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

- 꽃게의 경우 우리나라와 북한수역에서 어획한 것으로 저가 냉동품의 수입은 증가, 고가생물은 중국인의 수요증가로 수출증가
- 새우젓은 국내생산 풍흉에 따라 저급 수입품이 증감 될 것임
- 수입바지락은 대부분 북한산으로 일정량은 지속 수입예상
- 실뱀장어, 조기, 낚지 등 소량 생산되는 일부품목은 피해 불가피

□ FTA 대비 수산물 경쟁력 강화

- 어업인의 FTA 관심 결여와 막연한 피해 의식 개선 추진
 - 수협별 어업인 교육시(분기) FTA 설명, 영향 교육 및 홍보 실시
 - 군·구별 어업인 워크숍 및 각종 회의시 교육 및 홍보 실시
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·간접 지원 사업 확대 추진
 -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8개 사업/7,819백만원
 -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/ 712백만원
- 수입 수산물 검사 및 지도·단속 강화
 -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강화
 - 수입 수산물 유해 여부 검사 기능 강화

- ◇ 수산종묘 생산·방류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
- ◇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어장의 효율적 관리

□ 유용 수산자원 생산방류

- 연안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류품종 개발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 및 종묘생산 기술 보급
 - 어류 · 갑각류 · 패류 자원 190만미 생산 및 방류/ 320백만원
 - 민어(10만미), 꽃게(100만미), 동죽(40만미), 해삼(40만미)

□ 양식품종 및 수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험연구

- 다양한 고부가가치 품종 연구 및 기술 축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
 - 어류 · 갑각류 · 패류 자원 종묘생산 시험연구/ 72백만원
 - 참조기 · 개조개 · 백합 · 민꽃게 등 → 종묘생산 및 기술 체계 확립
- 생산성이 저하된 패류양식어장에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/ 21백만원
 - 개불 종묘생산 및 방류 → 현장적용을 통한 생산량 감소 어장에 대한 대책 마련
- 갯벌 참굴 종묘생산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
 - 연구인력 1명 교육(1.19 ~ 4.19일) →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(통영)
- 꽃게 산업화(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) 연구/ '14.3.1~'17.2.28(2단계 3년)
 - 인천꽃게를 브랜드 · 산업화하여 우수기업 육성 및 꽃게 산업화 기반 구축

□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

- 바지락 양식어장 서식장 파괴로 인해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는 쪽 분포 실태 조사 및 구제방법 강구/ 23백만원
 - 쪽 분포량·수질·퇴적환경 조사 연구 → 옹진군 선재도 해역

- ◇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 보급
- ◇ 청·장년의 어촌정착 유도로 수산전문인력 체계적 육성
- ◇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

□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기술 개발 및 현장 기술 지원

- 주요품종 양식장에 대한 해황, 작황조사, 병충해 조기진단으로 양식 단계별 적기 기술지원, 대체품종 개발 보급
 - 양식어장 예찰 및 물푸구입 : 9백만원
 - 민어 축제식 시험양식 : 1개소, 40백만원
 - 연구교습어장 운영 : 1식, 35백만원
-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조기 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
 - 수산생물 질병 방역사업 : 예찰, 양식어업인교육, 방역물품구입, 30백만원
 - 위해생물(기생충)구제사업 : 어류양식장 68개소, 10백만원
- 도서·벽지 취약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·점검으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및 사고 사전 예방
 -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: 3개지역, 90백만원
- 소비자에게 수산물 원산지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도모
 -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·단속 : 연중, 10백만원
 -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·배포(2,700개) 및 명예감시원(65명) 운영

□ 전문 수산인력 양성 및 지원

- 수산정책 홍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정책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어촌지역 확산교육 추진
 -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등 4회, 36백만원
-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(어업인)의 자질함양과 특화 맞춤교육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및 자생조직 활성화 도모
 - 6가지 교육 33회, 49백만원
- 수산자원 전문가 및 어업인을 참여시켜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원회복 사업 추진
 - 꽃게 수산자원 회복 추진 :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운영, 12백만원